커지는 후쿠시마 불안… 日 어패류 수입량 30% '뚝'

수입량·수입액 두달 연속 감소…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 중단
해수부, 우려 업체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수입 금지 조치 해제 안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일본 어패류의 양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어패류의 국내 수입량은 두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수입액 또한 줄었다.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2129t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6% 줄었다.

활어와 냉장·냉동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등의 어패류를 모두 합한 수치다.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올해 1~3월에는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4월(-26.0%)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5월까지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11~12월 연중 최고치를 보이는 등 계절성을 띈다.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액도 1406만7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수입액 역시 1~3월 증가세를 보이다가 4월(-9.7%) 감소세로 전환했고 지난달까지 두 달째 줄었다.

이는 지난해 4~5월의 경우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 같은 일본 어패류 수입 감소 현상은 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고하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이 지난 12일 오염수를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시작해 국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지진 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주변 8개 현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어패류 수입 규모는 2014년까지 계속 줄다가 이후 일부 회복세를 보여왔다.

지난달 일본 어패류 수입량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전 해의 같은 달인 2010년 5월(7475t)과 비교하면 2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입액은 91.2% 수준으로 더 높은데, 이는 예전보다 고가의 활어 수입이 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장·냉동 어류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기자회견에서 수산물 수입 중단 해제를 요청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됐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의 항만 내에서 잡은 우럭에서 1만8천베크렐(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1㎏당 100Bq)의 180배에 달하는 수치다.

해수부는 5~6월 두 달간 해경·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고, 곧이어 2차 전수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초당옥수수 나왔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푸드에비뉴에서 판매 중인 여름 대표 채소 '초당옥수수'를 선보이고 있다. 초당옥수수는 일반 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높고 칼로리는 적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또 조리하지 않고 섭취가 가능하다. 광주점에서는 초당옥수수 5개를 780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은행, 지역 토종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 출시…업체당 최대 50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광주시에 본사를 둔 프랜차이즈 점주를 지원하는 '광주형 프랜차이즈 상생 특례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조선이공대학교·광주형 프랜차이즈협회와 협약해 만든 이번 상품의 지원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맹 본부 주소가 광주시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전액보증서 담보대출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다.

우대금리는 ▲조선이공대 프랜차이즈 관련 교육 이수자 ▲광주은행 및 광주신용보증재단 컨설팅 신청 업체 ▲영업점장 인정 우대금리 등 조건에 따라 최고 0.8%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영업점 및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월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광주은행을 방문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광주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595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6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총 1조2250억원의 상생금융 계획을 발표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가 지역 경제를 잠식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순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원/엔 환율, 8년만에 800원대

100엔당 897.49…추가 하락 관측

19일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한때 100엔당 800원대 까지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원/엔 환율이 단기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현 수준이 저점에 가깝다고 봤다.

이날 오전 8시 23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97.49원으로 고시됐다.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내린 것은 지난 2015년 6월 말 이후 8년 만이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은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서 긴축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완화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일본은행 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 상태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했다.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낸 것도 맞물렸다. 원화는 반도체 시장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한국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순매수 흐름이 나타나면서 최근 한 달 강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단기 저점으로 100엔당 890원 선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9.50 (-16.29)
↑	코스닥	888.61 (+0.66)
↑	금리(국고채 3년)	3.610 (+0.025)
↑	환율(USD)	1282.00 (+10.10)

맥스 달튼 작품 입은 '삼성 로봇청소기'

세계적 일러스트레이터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스페셜 에디션 협업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맥스 달튼(Max Dalton)'과 협업한 '비스포크 제트 봇 AI'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19일 공개했다. 삼성전자와 맥스 달튼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 63 에피소드2(Max Dalton, Moments in Film 63 Episode 2)' 전시 오픈을 앞두고 스페셜 에디션을 기획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비스포크 제트 봇 AI 스페셜 에디션은 상단 커버가 맥스 달튼의 대표작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비스포크 라이프' 총 2종으로 구성됐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상단 커버는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인 웨스 앤더슨 감독의 2014년작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오리지널 일러스트 작품을 담았다.

'비스포크 라이프' 상단 커버는 공간을 층층이 쌓아 도식화하는 맥스 달튼 특유의 화풍으로 제작한 것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주는 삼성 가전 제품들이 함께하는 비스포크 라이프를 그려냈다.

삼성전자는 19일부터 2주간 63아트 전시관에 이번 스페셜 에디션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포토존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인증샷을 찍어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맥스 달튼 스페셜 에디션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